

살아난다, 골목길-광주

올망졸망 감성길 쉬엄쉬엄 거닐다

“어린 시절 나를 키운 것은 ‘팔 할이 골목’이다. 골목은 내 유년의 정원이고 들판이며 큰 스케치 북이었다.” 건축가 임형남-노은주 부부는 ‘골목 인문학’에서 골목길을 이렇게 묘사했다. 대규모 재개발에 의해 우리 주변에서 골목길이 사라져가고 있다.

반면 살아남은 일부 골목길은 도시재생 사업에 따라 새로운 문화명소로 탈바꿈하고 있다. 최근 여행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광주 발산마을과 양림동, 전남 목포 ‘옥단이길’을 비롯해 나주-순천-여수-광양 등지의 골목길을 걸어왔다.

“골목길은 아늑한 휴먼 스케일을 유지하며, 차

가 다니지 않아야 하고, 근대사의 주역인 서민들이 사는 공간이며, 일상성의 가치가 살아 숨 쉬는 동네다. 또한 능선에 나지막하게 퍼져 있어야 하며, 한국전쟁 이후 독재개발기때 농촌이 붕괴되면서 대도시로 내몰린 사람들의 군집지이고 별의별 불규칙한 공간의 종합 선물세트이며, 귀납적 축적의 산물이다.”

임석재 이화여대 건축학부 교수는 지난 2000년 펴낸 ‘서울, 골목길 여행’에서 ‘골목길’을 이렇게 정의하며 “골목길은 우리가 살아온 역사이자, 문화이며 문화재”라고 말한다.

골목길이 우리 주변에서 급속하게 사라지고 있

다. 오랜 역사를 품은 동네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 탓이다. 가속화되는 도시화는 골목길을 몰아내고 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수십층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광주시 동구 학동 ‘팔거리’와 같이 동네 사람들의 회로애락이 담긴 오랜 골목길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됐다.

하지만 도시화와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풍을 비껴간 일부 골목길은 도시재생 사업에 따라 새롭게 변모하고 있다. 예전과 같이 골목길에 자리를 펴고 앉드려 숙제를 하거나 고무줄놀이를 하는 초등학생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쇠락해가는 동네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양림동 ‘팽권마을’ 골목길 풍경

추억·역사에 예술적 감성 더해져 문화명소로 탈바꿈
‘팽권마을’ ‘통기타 거리’ ‘K-POP 골목길’ 레트로 감성
민·관협력 도시재생 사업 통해 ‘청춘발산마을’로 부활



청년세대 발길 이어지는 양림동·사직동 골목길

양림동 행정복지센터 앞에는 ‘버들 숲’(楊柳)을 상징하는 아름드리 능수버들 한그루가 우뚝 서있다. 나무가 선 자리는 일명 ‘팽권마을’ 입구이기도 하다. 마을이름은 화재로 흉물스럽게 변한 마을 빈터에 뒷밭을 가꾸고 마을을 아름답게 꾸민 김동균 촌장에게서 유래했다. 40여 년 전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한 김 촌장의 불편한 걸음걸이가 흡사 팽권 같이 뒷밭에 ‘팽권 뒷밭’, 마을명 역시 ‘팽권마을’이라고 불려졌다고 한다.

골목에 들어서면 ‘시간을 문고기’라는 제목을 붙인 김동균 촌장의 정크아트를 비롯해 다채로운 작품들이 양쪽 벽면을 장식하고 있다. ‘유형 따라 살지말고 형편따라 살자’와 같이 벽면마다 적힌 문구가 웃음을 자아낸다.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가 새겨진 ‘시시(詩詩)한 골목’은 팽권 공예거리와 이어진다. 자녀와 함께 ‘팽권마을’을 찾는 탐방객들은 1960~1980년대로 ‘시간여행’을 하며 ‘레트로’ 감성을 만끽하는 듯하다.

현재 ‘근대역사문화마을’ 양림동에서는 ‘제1회 양림골목 비엔날레’(-5월 9일)가 한창이다. ‘마

음이 미술관이다’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양림동이 품고 있는 역사와 문화예술을 음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아쉽게도 1899년 건축된 ‘이장우 가옥’(광주시 민속문화재 1호)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부에 들어갈 수 없다. 골목을 거닐다 보면 근대기에 지어진 서양식 건물과 한옥, 작은 미술관, 독특한 분위기의 카페, 마음을 끄는 동네책방, 아기자기한 공방 등을 마주하게 된다.

양림동에서 양림파출소를 지나 ‘사직동 통기타거리’로 발걸음을 옮긴다. 이곳에는 광주 음악산업진흥센터를 비롯해 20여개소의 통기타 카페가 들어서 있다. 1980년대에 형성된 이곳은 ‘광주 뮤지션들의 음악적 고향’이었다. 축대위에는 광주

통기타 1세대 고(故) 이장순(1946~2012)과 국소남, 정용주, 박문옥, 한보리, 김원중 등 대표적인 광주 뮤지션들의 얼굴이 새겨져 있다.

이 밖에도 최근 광주 총장로우체국과 청소년 살다지인센터 사이에 ‘K-POP STAR 골목길’이, 광주극장 옆에 ‘영화가 흐르는 골목’이 새롭게 단장됐다. ‘카페 거리’로 널리 알려진 동구 동명동의 ‘동박에 골목’에서도 동명동의 온기를 느낄 수 있다.

골목길에는 도시의 역사가, 마을주민들의 삶의 체취가 깊이 배어있다. 결국 골목길은 한 도시에 뜨거운 피를 돌게하는 핏줄이면서 그 도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얼굴이다. 고층빌딩 속에서도 우리가 간직해야할 따뜻하고, 정감넘치고, 이야기가 있는 공간이다.



광주시 서구 ‘청춘발산마을’에서 볼 수 있는 작품 ‘엄마언제와? 누나빨리와’ (작가 신효운)

BTS벽화 찾아오는 광주 ‘청춘발산마을’

‘주민의 일상이 예술이 되는 마을 청춘발산마을.’

광주시 서구 양3동 발산마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문구이다. 광주의 대표적 달동네였던 발산마을은 민·관 협력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청춘발산마을’로 재탄생했다. 현대차그룹과 사회적기업 ‘공공프리즘’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광주시, 서구청,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사랑의 열매와 함께 디자인·문화·ICT(정보통신 기술)를 융합한 지속가능한 문화마을로 탈바꿈시킨 것이다.

마을을 완전히 철거하는 재건축·재개발이 아니라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펼쳐 마을 곳곳에 벽화와 조형물을 설치하고, 청년들이 들어와 식당과 카페 등을 창업하고 공방과 예술 작업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본래 마을이름에 ‘청춘’이 덧붙여진 이유다.

마을 공용주차장에 차를 두고 천천히 걸어본다. 샘물경로당 동쪽 골목은 ‘발산 명동벽화거리’로 조성돼 있다. 1929년 광주 학생독립운동과 발산마을 역사를 연계시켜 재미 있게 웹툰화한 벽화들이다. 골목안쪽에는 발산 주민들이 사용하던 물건과 사진들을 볼 수 있는 ‘양3동 역사문화박물관’이 자리하고 있다.

샘물경로당에서 남서방향으로 50여m를 걸어

가면 ‘108계단’이다. 띄엄띄엄 계단마다 청춘들의 고뇌가 담긴 메시지가 새겨져 있다.

‘어떤 존재로 빛을 낼지, 아직은 모르겠어. 야니, 어쩔 실패할지도 몰라.’

‘청춘은 무엇이고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서, 무엇으로 빛날까.’

계단 끝에 올라서면 마을을 가로지르는 도로에 닿는다. 오른쪽에는 예술가를 위한 레지던시 공간 ‘뽕뽕브릿지’가 자리하고 있다.

계단 왼편에는 이색 대형 벽화가 눈에 띈다. ‘방탄소년단’(BTS) 멤버중 한명인 광주출신 제이홉(j-hope)의 생일(2월 18일)을 맞아 중국 팬클럽의 기부로 그려진 벽화이다. 벽화는 너비 12m, 높이 3.5m 규모로, 주택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광주천과 마을을 내려다볼 수 있는 발산전망대에는 ‘별집’(작가 박상현·이성웅)과 ‘별따고 꿈따고’(작가 신효운·박상현·최윤미) 등 공공미술작품이 설치돼 있다. 구불구불한 마을 골목마다 색다른 벽화들이 장식돼 있다. 마을을 제대로 돌아 보려면 ‘청춘발산마을’ 홈페이지(balsanvillage.com)에서 마을지도와 오디오 파일을 다운로드해 돌려보길 권한다. ‘마을산책’ 3개 추천코스가 있으며, ‘주민집밥 투어’와 ‘마을해설사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송기동 기자 song@

/사진=나명주 기자 mjna@



광주시 남구 양림동과 사직동 골목길은 특유의 문화를 품고 있다. 사직동 ‘통기타거리’ 조형물.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